



말씀

“성화(聖化)”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5절)’는 말씀에 눈길이 갑니다. 눈길이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참조)라고 하였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 다시 말해 물이 있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일어난 타볼 산은 육지 중에서도 높은 곳입니다. 성경 속에서 ‘산’은 하늘과 가까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모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이 어디든지 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39편에서는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시편 139,8)라며, 우리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2티모 1,9)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서 달음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1코린 9,24-25)



신기훈(그레고리오) 신부
통해(해군 제1함대)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창세 12,1-4ㄱ
회 답 송 ◎ 주님,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 시 2티모 1,8ㄴ-10
복음 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마태 17,1-9
영 성 제 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진리를 살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얼마나 이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1요한 1,8)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거룩한 미사전례 시작 때 자신의 잘못들을 알아내어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필요합니다. 난류와 한류가 교류하는 곳에 어족이 풍부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풍성할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밝음이 환히 드러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잘 드러냅니다. “무엇을 고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고 더욱이 살인도 하지 않았으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주일미사를 꺾지도 않았습디다.”와 같은 말을 쉽게 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고백의 기도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 줍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행위를 소홀히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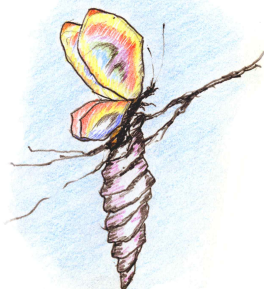
참회

에서의 소금과 빛,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척도와 반침이 되지 못했었다는 데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고백의 기도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와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께 전구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로 끝맺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죄악과 공동체적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적 행위이자 하느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고백과 용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예절을 바칠 때는 특별히 하느님과 만남으로써 그분과 화해를 이루고 또 우리가 서로 화해를 이루기 위해 미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참회의 예절 대신 「성수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식은 참회예식의 제4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절의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들이 받은 세례성사를 기념하는 데에 있습니다. 세례성사의 효력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한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세례성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순절과 부활절에 이 예절을 거행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전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탁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젠 날 때입니다.

오늘 여길 떠나면
다신 돌아 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포근함도
그 안전함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이젠,
저 파란 하늘을
날 때입니다.

상화이야기

<시막 속의 프란치스코>, <오상을 받는 프란치스코>



<시막 속의 프란치스코 성인>

벨리니 (1430-1516)
1480년 작,
패널 위 유화, 124.6 X 142 cm
프릭 컬렉션 미술관, 미국 뉴욕

벨리니는 베니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그의 그림에서도 이러한 화풍을 잘 엿볼 수 있다.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베니스는 118개의 섬과 약 400개의 이루어졌다. 물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덕분인지, 베니스의 공기는 다소 뿌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베니스의 화가들은 피렌체의 화가들이 추구하던 이상적이고 냉철한 느낌의 그림보다는, 다소 몽환적이면서도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으며, 다소 부드러운 느낌들의 그림을 그렸다.

지오토가 그린 같은 주제의 그림을 보면, 천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게서 성흔을 받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리고 있는데, 자연스러움 보다는 중세적 공식에 입각한 표현방식을 볼 수 있다.



<오상을 받는 성 프란치스코>

지오토(1266-1337)
1300년 경 작,
패널 위 템페리 화 313 X 163 cm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파리

반면 벨리니의 그림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묵상과 기도를 하는 소박한 공간은 돌산 속에 풀과 나무가 자라고, 뒷면의 열린 풍경 속에, 동물과 그리고 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실적인 공간이다. 그림 속에서 명확한 윤곽선보다는, 마치 흘러내리는 물결 같은 돌산의 굴곡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릴 것만 같은 나뭇잎들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지오토의 그림과 달리, 지금 이 순간이 지닌 무게가 금빛 찬란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 그림은 조용하고 고요하나,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조용하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벨리니아트)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2주일: 문무대 김영태 신부

◆ 교구장 동정

- 총의 성당 사목방문
때: 3월 12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3월 13일(월)-14일(화), 안동 농은수련원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목요일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김범휴 빈첸시오 010-4521-8194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